

봄철 과수원 저온 피해 예방 '불을 활용하라'

'연소법' 적용 농가 꽃 고사율 0%... 화재 주의해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해마다 발생하는 봄철 과수원의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 불을 활용한 효과적인 예방 기술을 17일 제시했다.

최근 5년간 4월의 저온 현상은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농작물 저온 피해 면적의 83.0%가 과수였고, 과수 피해 면적 가운데서도 배·사과 면적이 79.2%에 달했다.

대표적인 저온 피해 예방 기술로는 △위쪽 따뜻한 공기와 땅의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상팬(바람) △물을 뿌려 물이 얼 때 방출하는 열로 작물이 어는 것을 막는 살수장치(물) △불을 피우는 연소법을 들 수 있다.

농진청은 이 가운데 자체 개발한 연소법을 지난해 전남과 경기도의 배 재배 농가 5곳에 적용했다.

그 결과, 저온 피해 예방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던 곳은 꽃 씨방의 고사율이 54.1%였던 반면, 연소법을 적용한 농가의 배꽃에서는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0%) 모두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배나무는 4월 꽃이 필 무렵 영하 1.7~2.8도(°C)에 노출되면 저온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지난해에는 배와 사과 개화기에 2번이나 최저 기온이 영하 3~5°C까지 내려갔음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에 농진청이 개발한 연소법은 연소 자재와 연소 용기다.

2019년 개발한 기술은 금속용기에 메탄올 젤, 목탄, 액체파라핀 등 3종의 자재를 배치해 연소하는 방식이다.

2020년에는 이에 더해 연소 용기를 새로 개발했다. 이 용기는 발화 높이를 기존 15cm보다 5cm 높인 20cm가 되도록 해 화재위험을 줄였다. 등유(기름) 3리터를 주입해 80분 동안 바깥 기온보다 2도(°C) 높게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연소법을 활용하려면 화재 예방을 위해 등유, 파라핀 등 연소 자재를 반드시 금속성 연소 용기에 넣어 사용해야 한다.

또한, 3월 말까지 미리 휴갈이(경운) 작업을 마치고 과수원 곳곳에 6m 간격으로 연소 용기를 배치해야 한다.



과수원 연소법 활용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연소 용기 주변에 인화물이 없도록 주변을 세심히 정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과실 봉지와 가지치기 후 남은 가지 등 부산물이나 왕겨, 페타이어 등을 불태우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강삼석 배연구소장은 "연소법은 단독으로 또는 방상팬과 함께 쓸 수 있다. 방상팬을 설치한 농가에서 바깥 온도

가 영하 2도 이하로 내려갈 우려가 있다면 방상팬만을 사용해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소법을 함께 쓰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연소법 시범 사업에 참여한 전남 나주시 공산면의 한 농가는 "연소법을 써보니 나무가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어 효과에 대단히 만족한다. 특히, 이번엔 새로 고안한 연소 용기는 재활용할 수 있고 저렴한 등유를 활용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과 함께하는 '진안군 상생정담' 진안군과 농협진안군지부는 전북농협과 함께 17일 2021년 진안군 상생정담 '진안특색 5대품목 발굴 소득화사업·지역경제활성화 선포식'을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소개된 진안특색 5대품목발굴 소득화 사업은 시설채소, 수박, 인삼, 김치, 한우 품목을 집중 육성·관리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국민연금의 모든 정보 접근성 'UP'

국민연금공단 '온에어' 콘텐츠 포털로 새롭게 단장

추천 검색어 제시 누구나 쉽게 관련 콘텐츠 이동 가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사이트 '국민연금 온에어'를 콘텐츠 포털로 새롭게 단장해 17일 밝혔다.

국민연금 온에어(www.npsnair.kr)는 작년 4월 카드뉴스, 영상 등 국민연금 SNS 콘텐츠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플랫폼으로 일평균 5,000명이 방문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편의성과 디자인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전체 메뉴를 거쳐 개별 메뉴로 이동할 수 있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메뉴를 가로

로 구성해 좌우로 넘길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과 콘텐츠 접근성을 높였다.

아울러, PC 버전에서도 메인화면을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방식으로 수정해 친숙함을 더했으며, 메뉴 클릭 시 주요 콘텐츠가 한눈에 보이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에 대한 추천 검색어를 제시해 누구나 쉽게 관련 콘텐츠 이동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도 강화했다.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콘텐츠로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와 이벤트로 국민의 활발

한 참여를 유도해 포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 온에어'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페이지 주소를 입력해 별도의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홍보 콘텐츠를 이용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남길 수 있다.

또한, 공단은 콘텐츠 포털 개편 기념으로 4월 5일까지 '내 국민연금 궁금하면 사다리 타자'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새단장한 '국민연금 온에어'가 누구나 쉽게 제도와 기금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과 상생·협력 방안 모색

산단발전협 출범 계기로... 새만금청, OCI SE·솔베이·도레이 등과 간담회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7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주요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새만금 산단과 입주기업이 함께 성장·발전하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새만금청은 새만금 산단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한편,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는 OCI SE(주),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 도레이첨단소재(주) 등 현재 새만금 산단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3개사를 중심으로 17일 공식 출범했다.

김동문(OCI SE(주) 대표)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 회장은 "입주기업의 상생·협력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출범 포부를 밝혔다.

양충모 청장은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새만금청과 기업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계기가 돼 좋겠다"면서 "새만금 입주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스타트하우스 리뉴얼

무주 덕유산CC 개장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대표 김병철)가 겨울 휴장기를 마치고 영업에 들어갔다. 지난 3월 11일 개장 이후 첫 주말을 맞은 무주덕유산CC에는 예년 대비 많은 고객들이 찾아 명품 골프장으로 인기를 실감케 했다.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의 빼어난 절경 속에 호쾌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무주덕유산CC는 '골프의 전설, 아놀드 파머'가 청정고원 골프장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잘 살려 풀과 나무, 물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게 설계했다. 해발 900m에 위치한 청정 야생 고원골프장으로 한여름에도 시원하고 쾌적한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그린피는 일반요구 기준 주중 9만5천원부터 주말 15만원(회원가 별도/기간별 상이함)으로 이용가능 하며 특히, 주중 7시 30분 이전 티오프시 6만 원의 조조할인 요금이 적용되어 더욱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장을 맞이하며 고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기존의 협소한 스타트하우스를 철거하고 신축했다. 더욱 넓고 편리해진 공간에 고객들이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서부산림청,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방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지난 9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지자체 농·산림부서 및 농업기술센터와 협력, 관내 과수 농가, 농경지 및 주변산림을 대상으로 동시발생 병해충 월동난 발생조사를 실시하고 방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이 농림지 및 생활권 중심지에 끼치는 피해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방제에서는 돌발 해충이 성충이 되면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4월 전까지 나무에 붙어있는 동절기 알 덩어리를 나뭇가지 등의 딱딱한 물체로 긁어 제거해 파쇄 또는 소각하는 일 집 제거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지원

'2021년 신탁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 발대식

신탁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 이하 재단)이 지난 12일 대전 신탁중앙연수원에서 전국 조합 및 두손모아봉사단의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2021년 신탁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일반조합 23곳, 소형조합 10곳 등 전국 33개 회원조합이 참석해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올해부터 자산 500억 미만의 '소형조합' 부문이 신설돼 신탁 사회공헌 활동의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총예산은 5억 원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지역민을 위한 인문학교실 ▲다문화가정 아동 한국사능

력자격증 지원 ▲취약계층 가정 한방 무료 방문 진료 ▲지역 예술인과 지역 내 명소 조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탁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특성 및 문제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2015년 신탁 임직원들로 구성된 두손모아봉사단 사업에서 시작됐으며, 2019년부터 전국 단위 공모사업으로 확대됐다. 2015년 설립 이후 6년간 1만 3천여 명의 신탁 임직원 및 조합원이 참여해 8만 8천여 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김성주 신탁중앙회 신탁행복나눔부장은 "신탁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은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신탁의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 중 하나"라며 "신탁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과 지역민의 필요에 귀 기울이며 지역의 나눔운동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JB글로벌 외화적립예금' 신규 이벤트

전북은행, 6월 30일까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JB글로벌 외화적립예금 신규고객에게 환율우대 및 현찰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JB글로벌 외화적립예금 신규 이벤트'를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기존 '이투미 외화자유적립예금'이 'JB 글로벌 외화적립예금'으로 개칭되는 것을 기념해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전북은행 영업점, 인터넷뱅킹, 뉴스마트뱅킹 및 모바일뱅킹에서 'JB글로벌 외화적립예금'을 가입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JB 글로벌 외화적립예금'은 최초 미화 1불 상당액 이상으로 가입하여 고객이 원하는 시점마다 자유로이 외화를 적립할 수 있는 외화적립식 예금상품으로 만기 전 3회까지 분할인출이 가능하며 원화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설치 및 환율우대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이벤트 기간 내에 'JB 글로벌 외화적립예금'을 가입한 고객은 신규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화로 외화를 적립하거나 적립한 외화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90%의 환율 우대를 제공받는다. 또한, 가입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신규가입 고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외화현찰로 찾아가는 경우 외화현찰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기원, 과수화상병 예방 총력대응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에서는 과수 생육기가 도래함에 따라 과수화상병 발생억제를 위한 총력대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한 병으로 한번 발생하면 전염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주식물 전체를 고사시켜 피해가 크다. 현재 국가관리병해충으로 분류되어 발생된 과원은 즉시 폐원하고 매몰처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15년 처음 발생하기 시작해 작년에는 사과, 배 등에서 5개도

17개 시군, 394ha로 확산되면서 청정 지역이었던 전북지역에서도 작년 5월 처음 사과 과원에서 발생해 4.8ha를 매몰방제한 바 있다. 이에따라 올해를 위한 과원예찰과 농업인에게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과수화상병 진단기술, 간이진단키트 활용법 등 담당자 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3월말까지 과수화상병 신속대응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하여 시군에 배부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건협 전국 16개 검진센터, 모두 우수내시경실 인증 획득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 16개 지부 건강증진의원(재)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주관하는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획득했다.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는 소화기내시경과 관련된 환자의 안전 및 제반 의료의 질이 적절함을 보증하는 제도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건협 16개 지부 건강증진의원 인증제의 평가항목인 소화기내시경실의 인력, 시설 및 장비, 검사과정, 성과지표관리, 소독 및 감염관리, 진정내시경

등 총 6가지 분야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해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건협 채종일 회장은 "우수내시경실 인증 획득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내시경실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시경실을 찾는 모든 고객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전국 182곳이다. /김윤상 기자